"우리는 대부분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보다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 외롭다. 신은 혼자다. 하지만 악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. 악마는 여럿이 어울리며 무리를 이룬다." —**헨리 데이비드 소로**

"나는 고립에 적합한 인간이오." —**폴 세잔**

"상처 입은 사슴이 가장 높이 뛴다." —**에밀리 디킨슨**

"나는 너무 괜찮은 독신자라서 나를 망칠 순 없어요. 자만 같겠지만 자기를 방어할 땐 자만도 필요하겠죠." —**헨리 제임스**

"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" —**유도라 웰티**

"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, 검은 폭풍우, 그리고 심오한 감정. 혼자여야 진정한 무한함을 목격할 수 있지. 여럿이면 그 모든 것이 보잘것없고 정신이 산만해진다." —**라빈드라나드 타고르**

"나는 어떤 인종에도, 어떤 시간에도 속하지 않는다. 나는 진주목걸이를 한 영원히 존재하는 여성이다." —**조라 닐 허스턴**

"핸즈베리와 나는 남자나 옷, 그 밖에 하찮은 것들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다. 늘 마르크스와 레닌, 혁명에 관해 이야기했다. 그것은 진정한 여자들의 대화였다." —**니나 시몬**

"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." —**빌 커닝햄**

카멜북스 인스타그램
www.instagram.com/camelbook

카멜북스 포스트
post.naver.com/camelbook

헨리 데이비드 소로, 에밀리 디킨슨부터 빌 커닝햄까지

자기 삶을 주도한 독신자들에게 배우는 온전한 고독의 기쁨

몇 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한 지금, 고독을 삶의 방식으로 간주하는 것은 큰 주문이 될 수 있다. 그러나 존슨은 에밀리 디킨슨부터 빌 커닝햄에 이르기까지 십여 인물의 역사적 사례를 들어 예술가들이 영감의 원천과 더 가까이 살기 위해 강제적 사교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켜 왔는지 밝힌다. 캐서린 휴즈는 뉴욕타임스 사설에 "서정적이고 세밀하게 논증하는 이 책에서 존슨은 외로움과는 너무나 다른, 사실 그 정반대인 '혼자 있는 것'이 창조적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."고 썼다.

_뉴욕타임스

고독이라는 주제에 대한 유연하고 관대한 접근. 사려 깊은 탐구.

_월스트리트저널

나는 펜톤 존슨의 감성을 사랑한다. 그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, 고독을 우리의 가장 깊고 강력한 창조성의 원천으로 재발견하는 것은 혼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기쁨이자 위안이다.

_《콰이어트》 저자, 수전 케인

자아, 공동체, 가정에 대한 새로운 비전. 정직하고 근사하게 쓰인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경고가 필요하다. "이 책은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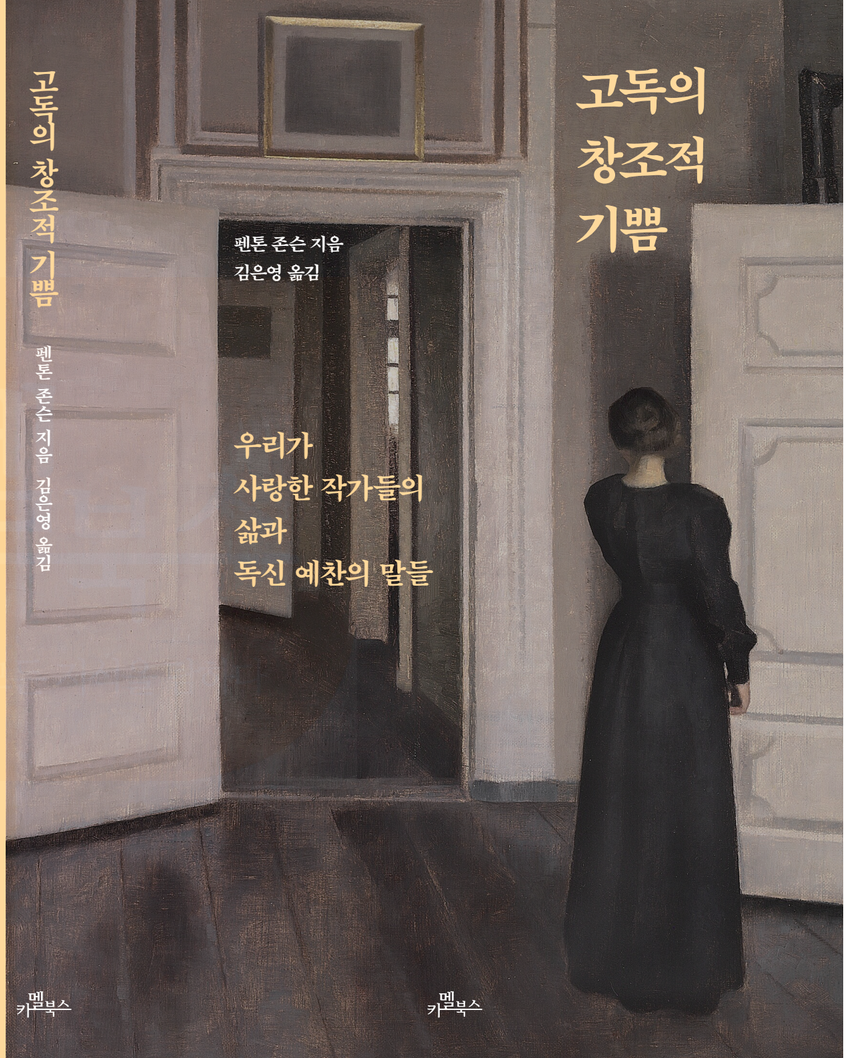
_임상심리학자 《무엇이 여자를 분노하게 만드는가》 저자, 해리엇 러너

9 788998 599000 00000

값 0,000원

ISBN 978-89-98599-00-0

Camel books



펜톤 존슨

(저자 프로필 입고 예정)

표지 및 내지 디자인 **창구**